

최첨단 IT기술 미래산업을 보다

김포케이디파워 견학을 다녀와서...

글 | 이재혁 (No. 644)

現 (주)한빛전력기술단 대표이사
前 대한전기기사협회 부회장

지난 11. 25(금) 김포에 있는 최첨단배전반업체 케이디파워공장을 견학하였다. 오전 9시 대전월드컵 경기장주차장에서 회원 40명은 쌀쌀한 아침바람을 맞으면서 관광버스에 몸을 싣고 고속도로에 진입하였다. 케이디파워 대전지사를 운영하는 강성호 대표는 견학단에 참가한 회원들의 열의에 감사를 전하면서 하루일정과 케이디파워공장 견학취지를 설명하였다.

11:30분 공장에 도착 공장에 들어서는 첫인상으로 경비실이 없다는 것이 우선 신기하게 느껴졌다. 공장가동과 운영관리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장 흐름을 동영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케이디파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첨단 IT기술을 도입한 공장으로 관리체제도 IT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었다. 회의를 통해 업무협약이 이루어지면 바로 컴퓨터로 회의 결과가 입력되고 공정에 즉시 투명하게 나타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컴퓨터가 개별 실적과 능력평가를 점수로 투명하게 나타냄으로서 능력을 평가받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경영방식이다.

공장에서 본 큐비클의 색조와 철판의 재질은 특수 처리한 재질을 사용하여 고급 가구를 보는 듯 청결하고 우아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전력IT 기능형 제품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탑재하여 구간별 고장진단, 누설전류, 고조파 실시간 모바일 M2M (Machie to Machine, Machine to Mobile)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배전구조는 일반건축물 중간층 부하중심지 설치가능하고 지능운전과 고효율저소음 44dB 이하, 체적 20%축소, 히트싱크 기술로 33% 터보운전(특히), 핸드폰 무인운전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각 서버뱅크의 전력정보 실시간 감시시스템으

로 설계되어 있다. 미래산업의 IT접목을 보면서 고개가 끄덕여 졌다.

KD파워는 춘천에 18만평 산업문화복합단지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사업은 단순히 사업과 IT뿐만 아니라 환경과 예술, 문화와 산업이 만나 건설하는 새로운 꿈의 공동체로 꿈의 사업이라 한다. 녹색산업 IT 비즈니스 모델로서 태양광, LED, 하이브리드 에코에너지 시스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감성 LED 조명시스템을 구현한다는 목표하에 LED사업도 준비중이라 한다. 다양하게 융합되어진 6개의 전기절약 시스템을 갖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공급하여 에너지 20%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딱딱하지만 한 전기사업도 IT기술과 연계되면서 풍요로운 삶을 위한 변혁을 이루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된다. 춘천 메가시티는 기술과 인간, 문화와 자연이 하나가 되는 상식과괴의 상생통합의 유토피아를 이루려는 꿈이다. 기술을 예술처럼 승화시키려는 의지가 보였다. 문화와 기술이 이루어 지는 케이디파워의 드림소사이어터는 예술적 기술로 진보하고자 하는 동지가 되려고 힘을 보았다. 자연과 문화, 예술과 함께 하는 제조업이다.

풍요로운 환경과 연구단지가 결합하고 생산공장은 테크파크의 모습을 갖추면서 공장갈지 않은 공장, 공원 같은 공장이 들어서면서 제조업의 역사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곳은 앞으로 단순히 기업의 성장잠거점지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꿈의 유토피아 파크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 한다. ❖